

영산강 하구둑 30년 구조·기능 재검토를

1981년 동양최대 담수호

전남 서부권역 젓줄 역할

수질 악화 침수피해 여전

환경 변화 기능 재설정

‘대한민국 지도를 바꾼 대역사(大역事)’, ‘홍수와 한해의 대명사 영산강을 영원히 바꿔놓을 기적의 뚝’, ‘동양 최대의 담수호’ 등 온갖 수식어와 함께 건설됐던 영산강 하구둑이 준공 30년을 맞았다.

18일 전남도와 농어촌공사 영산강 사업단에 따르면 영산강 하구둑은 ‘가물과 홍수 없는 천천후(全天候) 농토 개발’을 내세우며 5단계로 나눠 추진한 ‘영산강유역 농업종합개발사업’ 중 2단계 사업에 따라 지난 1978년 1월 20일 공사를 시작해 3년 11개월 만인 1981년 12월 8일 완공했다.

공사비는 421억원이 들었고 연인원 91만명, 87만대의 장비가 투입됐다. 당시 들어간 흙과 돌(291만4000㎥), 콘크리트(8만3000㎥)량은 서울에서 목포까지 너비 4m, 높이 2m의 뚝을 쌓을 수 있는 양과 맞먹었다.

하구둑 공사로 조성된 담수호는 당시 동양 최대 규모로 2억5300만㎥의 물을 가둘 수 있어 목포·영암·함평·

나주·무안 등 2만9000ha에 풍부한 젓줄을 대는 역할뿐만 아니라 하루 8만㎥의 상수도 공급 및 1일 5만㎥의 농업용수 공급 기능을 맡았다. 새로 생겨난 간척지 5500ha도 농지로 조성 가능하게 됐다.

하지만 30년 전 기대했던 사업 효과가 모두 이뤄졌다고 보기는 힘들다. 영산강 하구둑 건설 이후에도 갈수록 물부족이 심각했고 축산 분뇨 등의 유입이 끊이지 않으면서 영산강 하류 수질은 갈수록 4~6급수로 전락했다. 농업용수로도 사용하는 게 불가능할 정도로 나빠지면서 지역민들 사이에서는 ‘수량 확보’ 및 ‘침수 피해’를 위해 막았던 하구둑을 다시 터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기상변화로 홍수 시 물의 유입량이 크게 증가함으로써 영산강 일대는 또 다시 홍수의 위험에 노출됐다. 지난 1989년 태풍 주디와 2004년 태풍 메기가 내습했을 때 나주, 광주, 함평 등에서 2만4000ha의 농경지가 침수 피해를 입기도 했다.

결국 정부는 30년 만에 리모델링에 나서 2012년까지 영산호와 영암호 배수갑문을 확장하고 영산~영암호간 연락 수로를 넓혀 담수호간 홍수량을 분배해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영산강 하구둑 구조개선사업’을 추진중이다. 관광 기능도 영암·해남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등이 차질을 빚으면서 빛이 바래다.

이에 따라 영산강 하구둑 축조 30년을 맞아 달라진 환경에 맞도록 하구둑 역할에 대한 방향을 재설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하구둑을 개방하는 게 영산강 수질 개선에 도움이 되는지 비롯, 바닷물이 영산강으로 유입되는데 따른 침수 피해 발생 가능성 등도 신중하게 검토해 지역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기능을 재설정해야 한다는 얘기가.

전남발전연구원 관계자는 “영산강 하구둑 축조 30년을 맞아 효과를 살펴보고 철저한 분석을 거쳐 새로운 역할을 찾아야 할 때”라고 말했다.

/김진수기자 dok2000@kwangju.co.kr



영산강 하구둑이 준공된 지 30년이 됐다. 농어촌공사는 변화된 환경에 맞게 배수갑문과 인근 연락수로를 넓혀 홍수 예방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구조개선사업을 벌이고 있다. /김진수기자 jeans@

5·18, 고교 교과서 집필기준 명시

시안 발표...6월 항쟁·4·3 사건 등과 함께

중학교 역사교과서 집필기준에서 빠져 논란이 됐던 5·18 민주화운동, 6월 민주항쟁, 제주 4·3 사건, 친일과 청산 노력 등이 고등학교 역사교과서 집필기준 시안에는 명시됐다.

국사편찬위원회(국편) 산하 역사교과서 집필기준 개발 공동연구진은 이런 내용을 담은 ‘2009년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고등학교 역사교과서 집필기준 시안을 지난 16일 발표했다. 교과서 집필기준은 교과서 저자들이 집필할 때 반드시 따라야 할 규정이다.

이날 공개된 고교 교과서 집필기준 시안은 “4·19 혁명 이후 현재에 이르기까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발전 과정을 정치변동과 4·19 혁명, 5·18 민주화운동, 6월 민주항쟁 등 민주화 운동, 헌법상의 체제 변화와 그 특징 등 중요한 흐름을 중심으로 설명한다”며 5·18 민주화운동, 6월 민주항쟁을 명시했다.

또 “정부수립 전후 단독정부 수립을 둘러싼 갈등으로 나타난 제주 4·3 사건, 친일과 청산 노력 등을 기술하도록 유의한다”고 제주 4·3 사건, 친일과 청

산 노력도 구체적으로 언급했다.

중학교 집필기준 시안에서 논란이 된 ‘자유민주주의’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라는 용어는 고교 역사교과서 집필기준 시안에 그대로 사용됐다. 또 ‘장기집권 등에 따른 독재화’라는 표현도 유지했다.

위원회는 이날 공청회를 열고 학계 의견을 수렴한 뒤 오는 21일 최종안을 마련해 교과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교과부는 심의 과정을 거쳐 30일 집필 기준을 확정 발표할 방침이다. 새 역사교과서는 2014년부터 일선 학교에서 사용한다.

/최권익기자 cki@kwangju.co.kr

민주통합당 공식 출범

민주당·시민통합당·한국노총 합당

내달 15일 지도부선출 전대

민주당과 시민통합당, 한국노총은 지난 16일 수임기관 합동회의를 열어 민주통합당(약칭 민주당)으로 합당을 공식 결의한 뒤 18일 첫 지도부 회의를 열어 공식 출범을 선언했다.

민주통합당은 18일 국회에서 야권 통합 추진모임인 ‘민주진보정당 건설을 위한 대표자 연석회의’와 함께 출범식을 겸한 회의를 열고 통합 선언문을 발표했다.

민주통합당은 통합선언문에서 “야권 통합을 향한 헌신과 정권교체의 열망으로 민주통합당이 출범했다”며 “민주·시민·노동이 함께 하는 새로운 통합의 역사를 만들어 냈다”고 밝혔다.

출범식에는 민주통합당 원혜영·이웅선 공동대표 등 신임 지도부와 순화규 전 민주당 대표, 문재인 노무현재단 이사장, 이용득 한국노총 위원장, 박원순 서울시장, 문성근 전 시민통합당 지도위원, 김진표 원내대표 등 30여명의 야권 인사들이 참석했다. 민주통합당은 지도부 선출을 위한

전담대회를 다음달 15일 개최하기로 했으며, 후보가 9명 이상이면 오는 26일 예비경선을 거쳐기로 했다.

이에 앞서 민주당, 시민통합당, 한국노총은 지난 16일 국회에서 열린 수임기관 합동회의에서 당헌, 강령을 확정하고 당명은 민주통합당으로 최종 결정했다.

또 민주당 원혜영 의원과 시민통합당 이용선 대표가 임시 공동대표를 맡기로 하는 등 11명의 임시지도부를 구성했다. 다음달 15일 전담대회에서 새 지도부를 뽑을 때까지 당무를 담당하고 지도부 경선을 관리할 이 임시 지도부에는 민주당 5명, 시민통합당 4명, 한국노총 2명이 배정됐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초청의 말씀

존경하는 동문 여러분!
2011년 한 해 동안 모교와 총동창회 발전을 위해 보내주시신 성원과 협조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11년도 정기총회 및 조대인의 밤』 송년연대담에 초청의 말씀을 드리오니 자리를 빛내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도 정기총회 및 조대인의 밤』 송년한마당 행사

- 일시: 2011. 12. 21(수) 오후 6시
- 장소: 광주리미다 호텔 5층(사무지구)
- 문의: 총동창회 사무처, 228-0197-8

*특별이전 동문에게는 소정의 기념품과 경품을 추첨하여 드립니다.

조선대학교 총동창회 회장 신흥수

담양·곡성·구례 선거구 분할 검토 민주당, 인근 지역구 편입 추진

민주당이 내년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과 관련, 담양·곡성·구례 지역구를 분할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18일 민주당 핵심 관계자에 따르면 민주당은 내년 총선 선거구 획정 문제와 관련, 인구 하한선을 10만3469명에서 1만6000여명 내외로 확대하

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 경우, 수도권에서 3개 지역구가 늘어나는 반면, 영남 2곳, 호남 1곳이 줄어들어 현재의 국회의원 의석수 299석을 유지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호남에서 줄어드는 지역구는 담양·구례·곡성으로 분할이 이뤄질 경

우, 각기 인근 지역구로 편입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한편,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산하 선거구획정위원회는 지난달 11일 8개 선거구를 새로 만들고, 부산 남구갑·을, 여수 갑·을, 성동 갑·을 등을 하나로 합치는 방안을 내놨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광신대학교
2012학년도 학부 신입생모집
정시모집 '가군'
[원서접수 2011.12.22(목)~27(화)]
www.kwangshin.co.kr
입학문의: 학부 062)605-1114, 대학원 062)605-1115

★ 보육교사는 어린이집과 가정어린이집에서 근무하며, 영유아를 보호하고 교육하는 교사입니다.

◀ 보전복지부 위탁교육기관 ▶

2012년도 제20기
보육교사교육원 학생모집

교육안내
• 교육기간: 2012년 2월 20일(월) ~ 12월 중순(약 10개월)
매주 월요일 ~ 금요일 수업
• 교육시간: 주간반 오전 9:30~1:10 / 야간반 오후 6:30~10:10

제출서류
1. 본 교육원 입소신청서(소정양식) 1부
2. 최종학교 졸업(예정) 증명서 1부
3. 주민등록초본 1부
4.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반명함판 사진 2매
※ 원서접수시 전형료: 5,000원

전형방법
• 서류 및 면접전형: 2012년 1월 16일(월) 오전 10시

원서교부 및 접수
• 원서교부 및 마감일: 2011년 12월 1일(목) ~ 2012년 1월 13일(금)
※ 토요일, 공휴일은 휴무
• 접수방법: 방문 또는 우편접수(2012년 1월13일 도착분에 한함)
• 원서접수처: 본 대학교 교육원 교학처

문의할 곳
교학처 김승호 선생
• TEL 062)605-1112, 605-1023 FAX 062)572-0264
• E-mail: krimsen@hanmail.net
500-710 광주광역시 북구 양산백지 소로 36번지 광신대학교 교학처

나도 이제 보육교사!
1년 과정 수료 후 어린이집 교사가 될 수 있습니다.
저렴한 교육비(1년에 1,700,000원:2011년 기준)와 훌륭한 교수진이 준비된 광신대학교 보육교사교육원을 지금 노력하십시오.

★ 보육교사 자격 및 진로 ★
보전복지부에서 위탁 선정된 광신대학교 보육교사교육원에서 소정의 과정(보육교사양성교육과정 1년)을 수료하면 보육교사직격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어린이집과 가정어린이집 등에 보육교사로 근무할 수 있습니다.

★ 지원자격
고등학교 졸업자나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 소지자로서 누구나 지원가능합니다.
(단, 4주간의 편성실습(10월경)이 가능한 분이어야 함)

광신대학교 보육교사교육원

요양보호사란?
2008. 7. 1부터 시행되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서 요양이 필요한 노인 등에게 전문적인 간병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만든 새로운 국가자격 제도입니다.

◀ 광주광역시 지정 교육기관 : 광주-2008-제001호 ▶

2011년도 야간반
요양보호사교육원 수강생모집

신규자반
① 교육일정 - 2011년 12월 12일(월)~2월 17일(금)
※매주 월, 화, 목, 금 18:00~22:50 / 총 160시간(실습 80시간 별도)
② 모집인원: 각 40명(★ 교육비 등록순으로 선착순 마감)
③ 교육비: 400,000원
④ 제출서류 - 입소신청서 1부(소정양식)
- 주민등록등본 1부
- 주민등록증 사본 1부
- 사진 2매

자격증반
① 모집인원: 40명(★ 교육비 등록순으로 선착순 마감)
② 교육비: 150,000원
③ 교육일정 - 사회복지사: 42시간(실습 8시간 별도)
- 간호사: 32시간(실습 8시간 별도)
-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간호조무사: 42시간(실습 8시간 별도)
④ 제출서류 - 입소신청서 1부(소정양식)
- 주민등록등본 1부 - 경력증명서 1부(경력자만 해당)
- 주민등록증 사본 1부 - 자격증사본 1부(자격자만 해당)
- 사진 2매

1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자 : 성실과 사랑으로 노인을 섬기고자 하는 모두 (면접후 학습능력 가능한 자)

대학교 전임 겸임 교수 직접 강의 !!

광신대학교
KWANGSHIN UNIVERSITY
500-710 광주광역시 북구 양산백지 소로 36번지

문의전화 062) 605-1112, 1063 / F. 062) 572-0264